

# 한국 아이돌 산업은 ‘헝거 게임’?

## 샤이니 종현 비극으로 본 명과 암

영국 가디언 “배려 없는 케이팝 산업”  
미국 연예매체 “잔혹할 정도로 경쟁”  
중국·태국·인도네시아선 벤치마킹  
세계 주류가 된 케이팝 산업의 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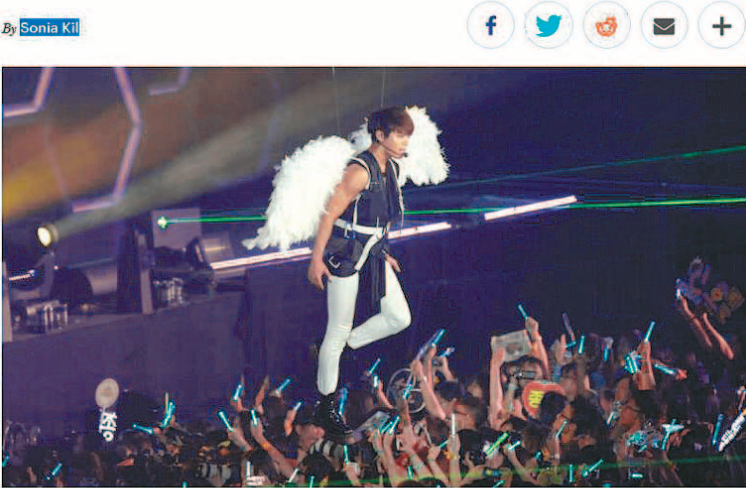
그들 샤이니 종현의 충격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 아이돌 산업의 명과 암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케이팝 문화가 한국 특유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하면 그 이면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았던 서구 음악시장을 뚫은 방탄소년단의 ‘승전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는 요즘, 갑작스럽게 전해진 종현의 극단적인 선택은 그 화려한 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영국 BBC와 일간지 가디언 등 주요 매체들은 종현의 자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케이팝 산업의 이면을 지적했다. BBC는 20일(한국 시간) ‘종현, 케이팝 스타의 우울증이 유서로 드러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어린 연습생을 데뷔시켜 자유를 제한하는 한국 아이돌 산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가디언 역시 ‘빛나는 스타가 배려 없는 케이팝 산업 한가운데 죽다’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한국의 아이돌 지망생들은 대부분 10대 초반부터 계약을 맺고 엄격하게 훈련을 받는다. 이중 극히 일부만 데뷔의 기회를 얻는다”고 전했다.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아이돌 지망생들은 잔혹할 정도로 심한 경쟁을 한다”면서 영화 ‘헝거 게임’에 비유했다. 버라이어티는 한국 아이돌 지망생뿐만 아니라 데뷔 후에도 치열한 압박과 경쟁을 벌여 스타가 되는 케이팝 육성 시스템이 영화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 Jonghyun Suicide Note Points to Brutal Pressure of Korean Spotlight



샤이니 멤버 종현의 죽음을 둘러싸고 해외 매체들이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한국 아이돌 시장을 ‘헝거 게임’에 비유했고(왼쪽사진), 빌보드는 SNS를 통해 추모했다.

매체는 또 “한국 가수들은 소속사의 엄격한 관리를 받고 가끔 높은 수준의 행동 규범을 요구 받는다”고도 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돌 산업의 명암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실력과 강한 의지만 있다고 누구나 데뷔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의 관심을 받기까지 숏한 경쟁과 끊임없는 자기개발, 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빅뱅, 엑소, 소녀시대, 샤이니 등 케이팝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한국 기획사 특유의 육성 시스템이 밑바탕 됐다. 오디션 등을 통해 가능성 있는 연습생을 선별해 데뷔시키고, 살아남기 위해서 데뷔 후에도 트레이닝의 연속이다. 그 과정에서 쏟아 부은 기획사의 엄

청난 자금, 가수들의 땀과 눈물 등으로 케이팝은 더 이상 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중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한국식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현지 연습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것도 한국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가요계에서는 18일 세상을 떠난 종현을 추모하는 의미로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그룹 엑소가 겨울 스페셜 앨범 발매를 당초 21일에서 26일로 미뤘고, 비투비는 23일 ‘2017 비투비 타임-우리들의 콘서트’를 앞두고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결국 트와이스도 신곡 ‘페리 앤 해피’ 뮤직비디오 공개일을 종현의 발인 하루 뒤로 늦췄다. ‘초등래퍼’ 프로젝트 조우찬과 박현진, 예

이철로가 함께한 신곡 발표도 연기됐다. 세븐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해오던 ‘고잉 세븐틴’을 한 주 쉬기로 했다.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종현의 빈소에는 20일에도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으며, 21일 오전 9시 발인이 엄수된다. 유족 측은 장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 헝거 게임

미국 소설가 수전 콜린스가 쓴 소설이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헝거 게임’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10대 남녀들이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생존 게임을 벌인다는 내용이다.

## 연예현장.jpg

김여진·정웅인, 연극 ‘리처드3세’로 의기투합



배우 김여진(왼쪽)과 정웅인이 연극 ‘리처드3세’로 의기투합한다. 황정민도 함께한다.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두 배우는 오랜만에 무대에 오르며 갖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주인공 리처드3세의 형이자 황제 에드워드4세 역의 정웅인은 “고전극의 매력을 만끽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6년 만에 연극 무대에 다시 서는 김여진은 “대뷔하고 언제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하겠지 생각했는데 소원을 이뤘다”고 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곡 중 하나인 ‘리처드3세’는 영국 장미전쟁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인물의 욕망을 그린다. 내년 2월6일부터 3월4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진행된다. 뉴스

##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 한국시장 본격 공략

‘화유기’ 등 드라마 글로벌 판권 확보  
‘범인은 바로 너!’ 예능프로 제작까지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관련해 올해 전 세계적인 논쟁을 일으킨 넷플릭스의 한국시장을 향한 행보가 바뀐다. 일반 극장 상영이라는 기존의 틀을 깨고 ‘옥자’를 자사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서 선보이며 논란을 모은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의 해외 유통은 물론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직접 제작 등에 나서고 있다.

넷플릭스는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화유기’의 글로벌 판권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이 드라마를 내년 전 세계 자사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또 현재 방송 중인 tvN의 ‘슬기로운 감빵생활’과 ‘아르곤’ 역시 넷플릭스의 유통망을 통해 해외 시청자를 만나게 된다.

넷플릭스는 또 유재석과 이광수, 안재욱, 김종민 등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 ‘범인은 바로 너!’를 제작 중이다. ‘X맨’ ‘패밀리가 떴다’ ‘런닝맨’ ‘아빠를 부탁해’ 등을 연출한 조효진·장혁재 PD 등 제작진이 참여하고 있다. 영화 ‘더닝’과 ‘끝까지 간다’를 연출한 김성훈 감독과 드라마 ‘시그널’ 등을 통해 이름을 얻

은 김은희 작가가 손잡은 드라마 ‘킹덤’도 넷플릭스의 작품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의 유명 연출자와 작가를 비롯한 콘텐츠 생산자들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 지 오래다.

이처럼 넷플릭스는 한류 열기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에 기대 한국 관련 콘텐츠 수급에 힘을 쏟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유명 제작자와 연출자, 작가 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넷플릭스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한국이 대중문화 콘텐츠의 또 다른 허브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각종 해외 영화제 등을 통해 인정받은 스토리텔러로서 영화와 아시아권에서 다양하게 변주되고 있는 각종 예능프로그램, 독특한 감성과 기획으로 해외에도 상당한 팬을 확보한 드라마 등 한국 문화콘텐츠의 힘에 대한 기대감인 셈이다.

이와 함께 국내 연예관계자들은 넷플릭스가 직접적인 제작방식 등을 통해 아직 한국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한 자사 플랫폼의 확장을 노린 콘텐츠 확보 전략이 아니겠느냐는 시선도 버리지 않고 있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 ‘화유기’ 이승기 ‘황금빛’ 넘어라

주말 최강자 ‘황금빛 내 인생’과 경쟁

화제의 드라마 ‘화유기’가 23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tvN ‘화유기’ 방송시간이 주말 최강자인 KBS 2TV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과 일부 겹쳐 버거운 경쟁작을 만나게 됐다.

‘화유기’는 밤 9시부터, ‘황금빛 내 인생’은 오후 8시부터 밤 9시15분까지 방송된다. ‘황금빛 내 인생’이 지난주 방송에서 4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화유기’로서는 힘든 경쟁이 예상되지만, 이승기라는 존재감이 충분히 경쟁력을 갖게 한다는 평가다.

이승기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폭 넓은 연령대의 시청자들로부터 두루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첫 드라마인 KBS 2TV ‘소문난 칠공주’를 통해 ‘국민 남동생’이란 애칭을

얻었고,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에 오랜 기간 출연하며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었다.

‘화유기’는 이승기가 군 제대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쏟아진 많은 러브콜을 뒤로 하고 복귀작으로 결정한 작품이다. 그만큼 드라마 성공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이승기는 그동안 여러 드라마에서 보여준 반듯한 이미지를 벗고 악동 캐릭터를 맡아 좌충우돌하는 사고뭉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볍지만 코믹하고 유쾌한 매력으로 시청자에게 새로운 재미를 안길 예정이다.

‘화유기’ 측의 한 관계자는 20일 “이승기의 군 제대 복귀작인 만큼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 숫자뉴스

**9위** 1994년 발표된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시즌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가 20일 기록한 빌보드 핫100 차트 순위. 발표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빌보드 핫100에 진입하는 이 노래의 기존 최고 순위는 11위. 톱10 진입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 #해시태그 킷



## ‘잘났어 정말’ 식구들 다시 뭉쳤다

잘 다져진 팀워크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좀처럼 깨지지 않는 모양이다. 연기자 심형탁이 “(하)희라 누님의 집”에서 박준혁, 김빈우 등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2013년 방송한 MBC 드라마 ‘잘났어 정말’에 함께 출연한 이들은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심형탁은 “특별출연을 해주신 (최)수중 형님과 희라 누님이 같이 살고 있는 건 비밀”이라는 재치 있는 글을 남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포츠동아 #심형탁 #최수중 #하희라 #김빈우 #영원한 팀워크

##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데있는 연예 잡학사전〉



영화 ‘옥자’

##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 이제 예선전 치른 ‘옥자’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내년 열리는 제90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후상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일부 매체는 ‘예비후보’라고 보도했고, 또 다른 매체는 ‘최종 후보’라고 썼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옥자’가 아카데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최종 후보작 선정에 위한, 일종의 예선전을 치른 것뿐이다. 최종 후보 5~6편을 가려내기 위해 우선 20편의 작품들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다시 10편을 추천 가운데 ‘옥자’가 거기에 포함된 것이다. 이 10편은 다시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후보작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결국 ‘옥자’는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작 10편 가운데 한 편이 된 것이다. 외신 보도는 이를 ‘shortlist’(최종 후보)라고 썼지만, 이 역시 실제 최종 후보작을 가리기 위한 절차를 설명하는 문구상 표현이다.

그렇다면 아카데미상 후보자(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아카데미상은 1927년 설립된 영화예술 과학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미국 최대 권위의 영화상. 매년 3월 시상식을 개최해 전년도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와 관련 배우 및 스태프 등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심사를 맡는 이들은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들, 배우와 감독, 제작자를 포함해 영화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각 스태프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재 회원은 약 6000여명. 한국인으로는 임권택·봉준호 감독, 배우 최민식·송강호·이병헌 등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각 전문분야에 따라 심사 대상작에 대한 심사와 투표를 실시한다. 일종의 전문분과위원회 형식을 빌려 각기 전문성을 살려 엄정한 심사와 투표를 진행한다. 작품상 등 일부 부문은 전체 회원의 투표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각 부문별 5~6편의 후보자(작)를 걸러내고 이에 대한 투표를 거쳐 수상자(작)를 선정하게 된다.

윤여수 전문기자